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조절모형(APIMoM) 분석*

김민제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교수

본 연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역할 태도가 조절하는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조절모형(APIMoM)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전국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134쌍이 양육태도 척도, 양육 효능감 척도, 성역할 태도 척도를 포함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APIMoM 분석 결과, 첫째,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효과는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부정 영향을 주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가 자신과 상대방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 모두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절효과는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자신의 양육태도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의 영향보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내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남편의 양육 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아내의 양육태도를 바라보는 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부부, 양육태도, 양육 효능감, 성역할 태도, APIMoM, 부부 양육

* 본 논문은 김민제(2025)의 석사학위논문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조절모형(APIMoM) 분석’을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봉경관 246호, E-mail: choigh@km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육아시간을 살펴본 박종서 등(2021)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평균 육아시간은 평일 291.4분, 주말 373.1분이었으나, 남성 응답자의 평균 육아시간은 평일 96.2분, 주말 26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호(2013)와 김혜원(1997)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추세와 더불어 부부의 양육책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 더불어 부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활발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김리겸, 2015; 문예진, 2024; 임승희, 유금란, 2020; 최희정, 유계환, 2024; 홍시라, 이유영, 2025).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Becker, 1964),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 경향성과 반응 양식을 의미한다(Fishbein, 1975).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신감, 또래관계, 정서적 특징,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박세롬 등, 2017; 박찬미, 김현욱, 2022), 부부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양육과정에서 협력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등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부부 유대가 강화되고 결혼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진아, 전세송, 2023; 장재홍, 김태성, 2002).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및 학업, 부부의

결혼만족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부모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허희숙, 2015; Dumka et al., 1996). 양육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 양육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개념으로(Bandura, 1977), 자신이 부모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상 및 효율적으로 양육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홍정아, 2010).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경험이나 타인의 성공과정 관찰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듯이, 자신과 타인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경험이나 관찰이 양육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안지영, 2001). 이와 관련하여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의 선행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강선애(2018)와 김진영과 홍상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 또한 높아지며,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아졌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양육참여도, 양육 효능감을 군집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한혜림(2021)의 연구에서는, 온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신의 양육에 유능감을 경험하는 아버지 집단의 부모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계활동참여의 효과를 살펴본 권기현(201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태도의 변화가 양육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본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Egami(2024)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과도한 시간과 정서 및 인지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집중 육아태도’가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에 전적인 자원을 집중하는 육아태도가 전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계속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오히려 양육 효능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Bornstein(2018)은 실제 양육을 실행하는 양육태도는 부모의 인지 및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경일(2022)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와 같은 부모의 인지의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따른 향상된 부모 효능감이 부모의 신념과 태도와 같은 부모의 심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 중 특히 성역할 태도는 부모가 양육을 누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배우자의 지지와 협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예측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혜성(2019), 박선주와 강민주(2017)는 성역할 태도에 따라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가족 상호작용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으며, Mickelson과 동료들(2006)은 성역할 태도가 배우자 지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지지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배우자의 행동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여, 배우자의 행동이 동일하더라도 성역할 태도에 따라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역할 태도는 성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전통적 태도’와 ‘근대적 태도’로 유형화 할 수 있다(임정빈, 정혜정, 1997).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기혼여성들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취할수록 생활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이진숙, 최원석, 2012),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혔다(김주현, 문영주, 2010; Richmond et al., 2015). Lavee와 Katz(2002)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가진 여성들의 전담육아는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반면, 전통적 관점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육아에서의 분리가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과 관련되어 결혼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남성의 태도에 대한 최혜선(2021)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양성평등적 태도는 양육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nithen 등(2021)의 연구에서 아내가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모성 본질주의 신념이 강한 남편들은 낮은 양육 효능감을 보고했는데, 이는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는 자신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행동과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특성을 지닌다. Gaunt(2005)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부모는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이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변화에 개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나에 대한 지지로 인식하고 양육 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다. 김영선(2019)과 이뿐새 외(2017)의 연구는 남편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와 높은 양육 참여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임은정(2019)은 남편의 근대적 성역할 태도가 자신의 평일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늘리고 아내의 돌봄노동 비중은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자신과 함께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를 조절변인으로 알아본 박다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며, 반대로 배우자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기대치 및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에 따라 배우자의 행동을 보는 시각과 자신의 양육 관련 심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성역할 태도가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부부 관계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양육과 관련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고받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경험을 개인 차원으로만 살펴본다거나, 부부 중 한 쪽만 연구대상으로 삼았거나, 배우자의 요인을 본인이 지각한 정도로 살펴보았다(박신영, 최은실, 2019; 윤서희, 성지현, 2014). 이러한 연구설계는 부부가 지니는 상호 역동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강지영, 이인수, 2017). 부부는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개인 차원이 아닌 부부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본인이 지닌 요인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쌍자료 분석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였다. 또한 APIM을 통한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성역할 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조절모형(APIMoM)’ 방식을 사용하여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6세까지의 시기동안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 발달은 급격히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장진아, 2023; 정남옥, 2009). 따라서 만 6세 이하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부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 시기에 부부 모두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행복감과 결혼 만족도가 높아져(오영은, 이정화, 2020), 성역할 태도와 양육태도는 이 시기 부부의 심리적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역할 태도가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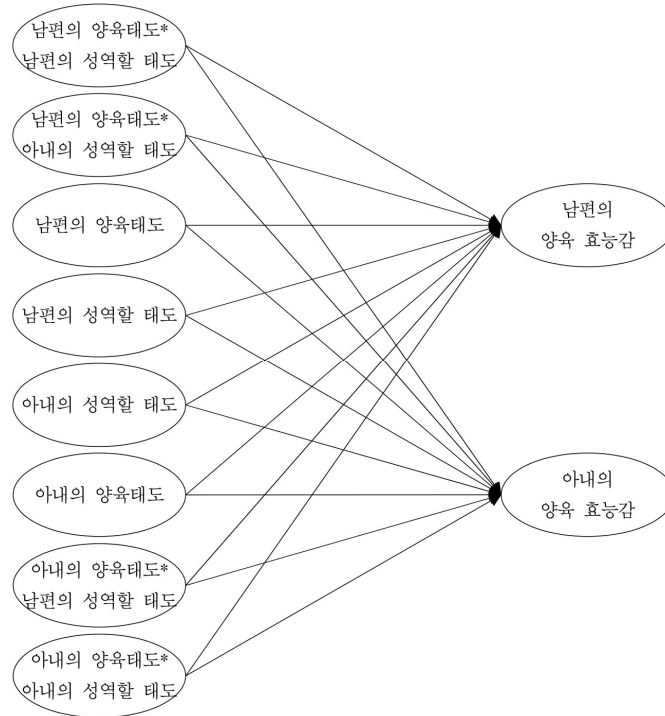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관계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속기관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을 시작하였으며(승인번호 40525-202411-HR-068-02), 설문조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방식의 경우 편의표집 방식, 오프라인의 경우 눈덩이 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상담 및 심리 관련 네이버 카페에 연구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모집공고문과 연구 동의서 및 설명문을 제시 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주제 및 연구참여를 통한 혜택 및 위험요소 등에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남편(N=134)	아내(N=134)
		N(%)	N(%)
연령	30세 미만	2(1.6%)	4(3.2%)
	30~40세 미만	98(76%)	119(92.2%)
	40~50세 미만	29(22.4%)	6(4.6%)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1(0.8%)	0(0.0%)
	고등학교 졸업	15(11.6%)	21(16.3%)
	대학교 졸업	110(85.3%)	105(81.4%)
	대학원 재학 이상	3(2.3%)	3(2.3%)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61(47.2%)	
	인천광역시	8(6.2%)	
	세종특별자치시	4(3.1%)	
	경기도	18(14%)	
	강원도	1(0.8%)	
	대구광역시	13(10%)	
	부산광역시	6(4.7%)	
	울산광역시	1(0.8%)	
	경상도	6(4.6%)	
	대전광역시	3(2.3%)	
	충청도	2(1.6%)	
	광주광역시	3(2.3%)	
	전라도	2(1.6%)	
	제주특별자치도	1(0.8%)	
결혼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4(3.0%)	
	3년 이상~5년 미만	48(35.8%)	
	5년 이상~7년 미만	46(34.3%)	
	7년 이상~9년 미만	31(23.1%)	
	9년 이상~11년 미만	5(3.7%)	
실제 양육 시간	3시간 미만	30(23.2%)	2(1.6%)
	3~6시간 미만	73(56.6%)	50(38.7%)
	6~9시간 미만	26(20.2%)	71(55%)
	9시간 이상	0(0.0%)	6(4.7%)
자녀 성별	남자	66(51.2%)	
	여자	63(48.8%)	
자녀 연령	1세 미만	1(0.8%)	
	1~3세 미만	10(7.8%)	
	3~5세 미만	88(68.3%)	
	5세 이상	30(23.3%)	
만 6세 이하의 자녀수	1명	119(92.2%)	
	2명	10(7.8%)	

대한 설명문을 제시받았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가자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부부 모두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연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한 쌍으로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34쌍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 중 남편의 평균연령은 36.8세, 아내의 평균연령은 34.8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대학교 졸업이 110명(85.3%)과 105명(81.4%)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3년이상 5년 미만인 48쌍(35.8%), 5년 이상 7년 미만인 46쌍(34.3%), 7년이상 9년미만이 31쌍(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는 119쌍(92.2%)이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은 남편의 경우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73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미만이 30명(23.2%),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이 26명(20.2%)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양육시간의 경우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71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0명(38.7%), 9시간 이상 6명(4.7%)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는 서울 61쌍(47.2%), 경기 18쌍(14%), 대구 13쌍(10%), 인천 8쌍(6.2%), 부산 6쌍(4.6%), 경상 6쌍(4.6%), 세종 4쌍(3.1%), 대전 3쌍(2.3%), 광주 3쌍(2.3%), 충청 2쌍(1.6%), 전라 2쌍(1.6%), 강원, 울산, 제주는 각 1쌍(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

부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아름

과 최은실(2024)이 개발한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 척도는 거부, 자율성 지지, 온정, 통제, 비밀관성, 구조 등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 별 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다(거부)’, ‘나는 아이가 스스로 흥미나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자율성 지지)’, ‘나는 아이에게 자주 애정표현을 한다(온정)’, ‘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행동을 고칠 때까지 잔소리를 한다(통제)’, ‘나는 아이가 잘못을 할 때 벌을 줄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비밀관성)’, ‘우리집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구조)’ 등이 있다.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6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거부, 통제, 비밀관성 하위요인은 역채점하여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 시 적절한 구조하에 일관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등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아름과 최은실의 연구(2024)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전체 .89, 거부 .82, 자율성 지지 .75, 온정 .80, 통제 .72, 비밀관성 .73, 구조 .76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경우 전체 .94, 거부 .81, 자율성 지지 .77, 온정 .84, 통제 .80, 비밀관성 .81, 구조 .80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전체 .95, 거부 .84, 자율성 지지 .78, 온정 .76, 통제 .82, 비밀관성 .88, 구조 .78로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 척도

부부의 양육 효능감은 박현희와 이경화(2020)

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개발한 ‘유아부 모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 부모효능감 척도는 자아 효능감, 양육행동 효능감, 사회적 역할 수행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유능하다’, ‘나는 책 혹은 대화를 통해 아이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 자녀를 양육 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인식하는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현희와 이경화의 연구(2020)에서 자아 효능감의 Cronbach’s α 는 .92, 양육행동 효능감의 경우 .82, 사회적 역할 수행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자아 효능감 .84, 양육행동 효능감 .91, 사회적 역할 수행 .79, 전체 .94로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 자아 효능감 .76, 양육행동 효능감 .83, 사회적 역할 수행 .72,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척도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종희(1984)가 Sex-Role Orientation Scale(Osmond & Martin, 1975)과 Sex-Role Ideology Scale(Mason & Bumpass, 1975)의 문항들을 통합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한 척도를 김혜원(1997)이 내적 일치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정 역할, 직업 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련한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지 혹은 진보적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김미경, 2007). 예시문항으로는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

고 남성은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를 가진 주부는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점: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혜원(1997)의 연구에서 15문항의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는 남편 .96, 아내 .92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성역할 태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조절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ration Model; APIMo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SPSS 30.0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요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남편과 아내 두 집단 간 차이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부부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6.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전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로 기본모형을 만들어 적합도를 확인하고,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기본모형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등가

제약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김민제 등, 2022). 넷째, 양육태도와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조절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ration Model; APIMoM)을 적용하여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1표준편차 낮은 값과 높은 값으로 집단을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이를 단순기울기 분석을 통해 어떤 집단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모형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핵심변인에 대한 기초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남편의 양육태도는 아내의 양육태도($r = .76, p < .001$), 남편의 양육 효능감($r = .84, p < .001$), 아내의 양육 효능감($r = .65, p < .001$), 남편의 성역할 태도($r = -.76, p < .001$), 아내의 성역할 태도($r = -.56, p < .0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양육태도는 남편의 양육 효능감($r = .59, p < .001$), 아내의 양육 효능감($r = .79, p < .001$), 남편의 성역할 태도($r = -.62, p < .001$), 아내의 성역할 태도($r = -.62, p < .0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양육 효능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은 성역할 태도와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아내 역시 전통적인 성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268)

	1	2	3	4	5	6
1. 남편의 양육태도	-					
2. 아내의 양육태도	.76 ^{***}	-				
3. 남편의 양육 효능감	.84 ^{***}	.59 ^{***}	-			
4. 아내의 양육 효능감	.65 ^{***}	.79 ^{***}	.59 ^{***}	-		
5. 남편의 성역할 태도	-.76 ^{***}	-.62 ^{***}	-.75 ^{***}	-.54 ^{***}	-	
6. 아내의 성역할 태도	-.56 ^{***}	-.62 ^{***}	-.49 ^{***}	-.46 ^{***}	.76 ^{***}	-
평균	4.8	4.8	3.9	4.1	2.2	1.8
표준편차	0.6	0.6	0.6	0.4	0.9	0.6
왜도	-1.67	-1.93	-1.88	-1.94	1.16	1.34
첨도	3.27	4.84	4.26	6.04	0.75	1.67

^{***} $p < .001$.

역할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 간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성역할 태도의 차이 분석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성역할 태도 수준이 부부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양육태도($t = -1.987, p = .049$), 양육 효능감($t = -4.947, p < .001$), 성역할 태도($t = 6.791, p <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양육 효능감이 더 높으며, 아내보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더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6개의 측정변수와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는 3개의 측정변수, 그리고 성역할 태도를 측정

하는 2개의 측정변수, 총 22개의 측정변수들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 양육 효능감, 성역할 태도 총 6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은 하위요인별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성역할 태도는 하위요인이 없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든 항목 중 부하량이 높은 순서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으며, 임의로 요인명을 정하여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RMSEA .108, CFI .89, TLI .87),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하였다. 무분별한 모형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난 남편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온정과 비일관성의 오차항, 남편의 통제와 비일관성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Byrne(2016)은 동일요인 내 문항 중 이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항목 간 오차항 간 상관을 설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동일 문항에

표 3. 부부간 양육태도, 양육 효능감, 성역할 태도의 차이분석

	남편 <i>M</i> (<i>SD</i>)	아내 <i>M</i> (<i>SD</i>)	대응표본 <i>t</i> 검정
양육태도	4.77(.59)	4.84(.62)	-1.987*
양육 효능감	3.93(.56)	4.13(.41)	-4.947***
성역할 태도	2.17(.86)	1.84(.61)	6.791***

* $p < .05$. *** $p < .001$.

표 4.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	<i>df</i>	<i>p</i>	TLI	CFI	RMSEA
초기 모형	493.94	194	.000	.87	.89	.108
수정 모형	388.05	181	.000	.91	.93	.093

표 5.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i>b</i>	β	<i>SE</i>
남편의 양육태도	→ 거부	1.00	.78	
	→ 자율성 지지	0.89	.76***	.09
	→ 온정	1.14	.86***	.10
	→ 통제	1.03	.70***	.12
	→ 비일관성	1.01	.68***	.12
	→ 구조	1.19	.86***	.10
	남편의 양육 효능감	→ 자아효능감	1.00	.83
→ 양육태도효능감		1.03	.97***	.07
→ 사회적 역할수행		1.04	.88***	.08
남편의 성역할 태도	→ 성역할 태도1	1.00	.97	
	→ 성역할 태도2	1.11	.94***	.05
아내의 양육태도	→ 거부	1.00	.81	
	→ 자율성 지지	1.04	.85***	.09
	→ 온정	0.78	.76***	.08
	→ 통제	1.22	.82***	.11
	→ 비일관성	1.25	.79***	.12
	→ 구조	0.97	.81***	.09
	아내의 양육 효능감	→ 자아효능감	1.00	.77
→ 양육태도효능감		0.89	.90***	.08
→ 사회적 역할수행		1.22	.87***	.11
아내의 성역할 태도	→ 성역할 태도1	1.00	.80	
	→ 성역할 태도2	1.45	.93***	.14

*** $p < .001$.

대한 배우자 간 응답은 공통된 생활 환경,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사한 반응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Bullock et al., 1994; Kenny et al., 2006)에 근거하여 배우자 간 동일 문항 모두에 오차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093, CFI .93, TLI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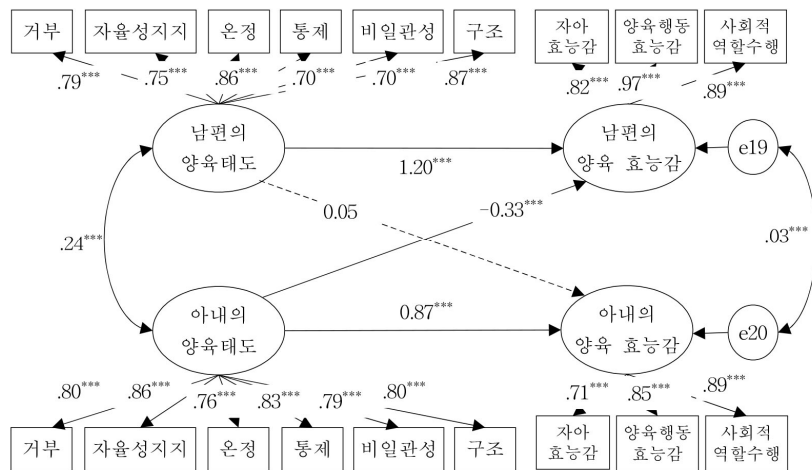
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모두 .68 ~ .97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신 및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본모형의 적합도가 낮았으므로, 수정지수를 확인한 후 수정지수가 10 이상인 남편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온정과 비밀관성, 온정과 통제, 통제와 비밀관성의 오차항 간, 아내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거부와 온정, 온정과 통제의 오차항 간, 아내의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아효능감과 양육행동 효능감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

였다. 그 결과 RMSEA .098, TLI .91, CFI .93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양육태도가 남편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2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방인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5, p = .64$). 또한 아내의 양육태도는 아내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정적 영향($\beta = 0.87, p < .001$)을, 상대방인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는 부적 영향($\beta = -0.3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긍정적인



*** $p < .001$.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결과를,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냄.

그림 2.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기본모형

표 6.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적합도 평가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기본 모형	331.28	129	.000	.87	.90	.105
수정 모형	280.16	123	.000	.91	.93	.098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남편의 양육 효능감은 높아지지만 남편의 양육태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내 자신의 양육 효능감은 높아지지만 남편의 양육 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비교를 위한 등가제약 모형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본모형과 비교분석하였다.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이,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 등가모형에서는 남편의 양육태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남편의 상대방효과와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아내의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태도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 = -0.33$)이 남편의 양육태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 = 0.0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아내의 양육태도($\beta = -0.33$)보다 남편 자신의 양육태도($\beta = 1.20$)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양육태도($\beta = 0.05$)보다 아내 자신의 양육태도($\beta = 0.86$)가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간 χ^2 차이검증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280.16	123	.000	.91	.93	.098	
자기효과 등가모형	283.81	124	.000	.91	.93	.098	$\Delta\chi^2(1) = 3.64,$ $p = .056$
상대방효과 등가모형	286.20	124	.000	.91	.92	.099	$\Delta\chi^2(1) = 6.05,$ $p = .014$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등가모형	346.92	124	.000	.87	.90	.116	$\Delta\chi^2(1) = 66.75,$ $p < .001$
아내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등가모형	294.85	124	.000	.90	.92	.102	$\Delta\chi^2(1) = 14.69,$ $p < .001$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111, CFI .916, TLI .894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Garcia 등(2015)은 APIMoM 분석 시 상호작용 항의 투입으로 인해 전체 모형 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때 모형의 적합도 보다는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상호작용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자세한 결과는 표 8, 표 9, 표 10 및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과의 경우, 남편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으로, 아내의 양육태도와 성역할 태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남편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방효과의 경우, 남편의 양육태도가 아내의 양육 효능감으로,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배우자의 양육 효능감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양육태도와 성역할 태도 간 상호작용효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수준에 따른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 간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과 표 10에 나타난

표 8. 양육태도, 성역할 태도, 양육 효능감 간 주효과

경로		<i>b</i>	SE	<i>t</i>
Main effects(주효과)				
자기효과	남편의 양육태도 → 남편의 양육 효능감	.25	.05	4.83***
	남편의 성역할 태도 → 남편의 양육 효능감	.10	.08	1.20
상대방효과	남편의 양육태도 → 아내의 양육 효능감	.34	.06	5.92***
	남편의 성역할 태도 → 아내의 양육 효능감	-.11	.09	-1.26
자기효과	아내의 양육태도 → 아내의 양육 효능감	.22	.09	2.56*
	아내의 성역할 태도 → 아내의 양육 효능감	-.13	.05	-2.71**
상대방효과	아내의 양육태도 → 남편의 양육 효능감	.59	.10	6.18***
	아내의 성역할 태도 → 남편의 양육 효능감	-.01	.04	-0.15

p* < .05, *p* < .01, ****p* < .001.

표 9. 양육태도, 성역할 태도, 양육 효능감 간 상호작용효과

경로		<i>b</i>	<i>SE</i>	<i>t</i>
interaction effects(상호작용효과)				
자기효과	남편 양육태도* 남편 성역할 태도 → 남편 양육 효능감	.01	.00	1.80
	남편 양육태도* 아내 성역할 태도 → 남편 양육 효능감	.01	.01	1.37
상대방효과	남편 양육태도* 남편 성역할 태도 → 아내 양육 효능감	-.01	.01	-1.18
	남편 양육태도* 아내 성역할 태도 → 아내 양육 효능감	-.01	.01	-0.68
자기효과	아내 양육태도* 아내 성역할 태도 → 아내 양육 효능감	.01	.01	1.29
	아내 양육태도* 남편 성역할 태도 → 아내 양육 효능감	.01	.00	1.26
상대방효과	아내 양육태도* 아내 성역할 태도 → 남편 양육 효능감	-.01	.01	-1.06
	아내 양육태도* 남편 성역할 태도 → 남편 양육 효능감	-.01	.00	-2.97**

** *p* < .01.

표 10.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신뢰구간

조절변수 수준	Effect	<i>SE</i>	<i>t</i>	<i>p</i>	95% CI	
					LLCI	ULCI
-.867(근대적)	-.143	.11	-1.35	.178	-.35	.07
.867(전통적)	.144	.06	2.31	.022	.02	.27

것과 같이,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에서는 아내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남편의 양육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b = .144, p = .022$),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에서는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43, p = .178$).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졌을 때에만 아내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남편의 양육 효능감이 증가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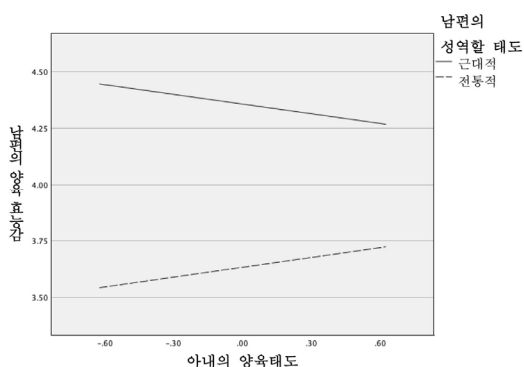


그림 3.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서 남편의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를 성역할 태도가 조절하는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조절모형(APIMoM)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양육태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 모두에게 있어 상대방 효과보다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한혜림, 2021),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양육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선애, 2018; 김진영, 홍상욱, 2022) 및 양육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 효능감도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고정국, 202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자기효능감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Bandura, 1977), 양육과 관련해서

도 본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에 대한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와 같이 밀접한 관계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태도보다는 자신의 태도가 양육 자기 효능감 증진에 더 중요함을 밝혔다. 부부가 지각하는 가족 상호작용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윤명자 등(2023)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나 인식보다는 자신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를 준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서 남편의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평균에서 1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의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가 남편 자신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김영선, 2019; 최혜선, 2021)나 아내의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남편의 양육 효능감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Campbell과 Abidog (2023)의 연구결과와 다를 뿐 아니라, 본 연구의 기본 모형에서 나타난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변인 간 관계가 조절변인의 투입 이전과 이후로 방향이 달라진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상호작용항이 투입될 경우 변인들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증가로 계수 추정이 불안정해지는 통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관이 -.56에서 -.76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상호작용 투입 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변인 투입 전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고, 예측변인, 조절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 VIF가 2.79에서 3.92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모형과 상호작용 효과의 불일치를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편들은 아내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고 적극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무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닫기 현상’(Allen & Hawkins, 1999)으로 설명가능하다. 문닫기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 중 하나로, 남편의 양육에 대해 아내가 보이는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하며(조운진, 임인혜, 2016), 아내는 문닫기 행동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려는 남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남편의 양육행동에 불만을 표시하여 남편의 양육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Alakoç, Akış, & Soydan, 2026; Allen & Hawkins, 1999; Freitas et al., 2025; Kim, 2025). 조운진(2017)은 아버지의 공동양육 경험 중 하나로 ‘양육자로서 부적절감과 소외를 느낌’을 보고하면서,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태도가 아버지가 양육에서 경험하

는 어려움과 부적절감을 오히려 증진시킴을 밝혔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지만,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아버지의 효능감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문지기 역할은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은 ‘양육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양육에 있어서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아내의 문닫기 행동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에게 아내의 문닫기 행동은 내가 못해서 소외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여로 가정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남편의 인식체계에 따라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평균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조절변인 투입 이전과 이후의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제 3의 변인의 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고정국(2020)은 남편의 직업적 특성 중 퇴근 시간 등이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역할 태도 외 남편의 직업적 특성 및 직업 스트레스 등이 남편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부간 상호작용을 더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의 양육 효능감은 배우자의 양육태도보다 자신의 양육태도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 각자가 양육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관을 살펴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부부의 양육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아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 혹은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남편의 양육 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부의 공동육아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양육자로서의 부부 역할을 각각 시키고, 서로의 양육에 관한 신념과 기대, 가치관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또한,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양육노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경계를 설정하며, 이 과정에서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부모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문닫기 행동이 남편의 주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내가 완벽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고, 남편의 양육참여를 환영하고 촉진하는 문열기(maternal gate-opening) 행동이 보일 때 남편의 양육 효능감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균형있게 포함시키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표집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작은 표본이 모형의 적합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를 다수 포함하여 모수추정의 안정성과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기본모형의 결과와 조절모형의 결과가 다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역할 태도 외에 아내의 양육태도와 남편의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변인’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성역할 태도가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친다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조절효과는 탐색적 발견으로 간주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오차를 통제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변수 상호작용 모형 등을 활용하여 관계의 안정성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태도와 양육 효능감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생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 모형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의 개인차원의 연구를 부부 쌍 차원으로 확장하여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남편의 양육태도와 효능감의 관계에서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 아내의 양육태도가 남편의 양육 효능감을 저해할 수 있는 경로를 가시화함으로써 부부 공동양육 전략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애 (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영, 이인수 (2017). 단절 및 거절도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2), 351-373.
- 고정국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 조은영 (2019).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oM)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4(4), 49-65.
- 김리겸 (2015). 남편의 양육태도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육연구, 11(1), 55-71.
- 김미경 (2007).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과 이해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제, 심미경, 김수영 (2022). 구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방정식 APIM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61(3), 205-229.
- 김영선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13).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과 임금효과. 사회경제평론, 0(41), 97-127.
- 김주현, 문영주 (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진영, 홍상욱 (2022). 유치원 아동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수용태도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811-824.
- 김혜성, Grace Chung (2019). 행복한 대한민국의 '김지영'을 위하여 - 남편의 성역할 태도, 양육 분담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9(1), 35-64.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문예진 (202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다미 (2022). 가사분담이 결혼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중단 매개효과 분석. *유아정책연구*, 11(1), 51-79.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박신영, 최은실 (2019). 미혼 성인남녀의 성인 애착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41-55.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해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미, 김현옥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 -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이용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6(4), 234-244.
- 박현희, 이경화 (2020). 유아부모효능감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97-122.
- 송진아, 전세송 (2023).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가족과 문화*, 35(2), 69-114.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아름, 최은실 (2024).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6요인 양육태도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7(3), 1-29.
- 오영은, 이정화 (2020). 부부간 양육분담과 사분담 지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와 홑벌이 부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4), 625-644.
- 윤명자 (2023). 유아기 부모의 자녀가치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 및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자기-상대방 효과를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서희,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아동학회지*, 35(4), 199-222.
- 이뿐새, 류성연, 송민영 (2017). 아버지의 성역할가치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6), 75-97.
- 이은미 (202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 일가족 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3(4), 5-30.
- 임승희, 유금란 (2020). 부모의 자기분화와 부부친밀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 28(4), 561-581.
- 임은정 (2019).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장재홍, 김태성 (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장진아 (2023).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태도, 놀이신념, 자녀가치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남옥 (2009).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영유아를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2), 236-244.
- 정종희 (1984).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 2(1), 67-78.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57-115.
- 조윤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33-57.
- 최경일 (2022).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역할 가치가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경기도 거주 부모 간 차이. *GRI연구논총*, 24(1), 235-257.
- 최정혜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비교. *코칭연구*, 9(3), 101-120.
- 최혜선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215-230.
- 최희정, 유계환 (202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시민의식의 구조모형 분석. *아동교육*, 33(3), 153-175.
- 한혜림 (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의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30(5), 771-781.
- 허희숙 (2015).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시라, 이유영 (2025).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0(3), 603-624.
- 홍정아 (2010). 영아의 성별, 월령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영아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akoç, D., Akış, G., & Soydan, S. (2026).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gatekeeping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54(1), 18-38.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99-2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Hoffman & L.W.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Vol.1. Russel Sage Foundation.
- Bornstein, M. H. (2018). Parenting cognitions → parenting practices → child adjustment? The standard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8(1-2), 1-4.
- Bullock, H. E., Harlow, L. L., & Mulaik, S. A. (1994). Causation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ear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3), 253-267.
- Byrne, B. M.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3rd ed.). Routledge.
- Campbell, C. G., & Abidog, C. E. (2023). The contribution of relational support to parental self-efficacy in fathers and mothers. *Psychology & Psycholog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8(3), Article 000361.
- Donithen, R., & Schoppe-Sullivan, S. (2021).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new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6(3), 396-4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gami, S. (2024). Impact of “intensiv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via maternal parenting behavior.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37531.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Addison-Wesley.
- Feitas, M. C., Pinto, T. M., & Conde, A. (2025). Maternal gatekeeping and patern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on of dyadic adjustment. *Acta Psychologica*, 259, 105362.
- Gaunt, R. (2005). The role of value priorities in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43-655.
- Garcia, R. L., Kenny, D. A., & Ledermann, T. (2015). Moderation i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22(1), 8-29. <https://doi.org/10.1111/per.12060>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Guilford Press.
- Kim, A. (2025). The Impact of Maternal Gatekeeping on Children's Happiness through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0(1), 93-101.
- Lavee, Y. & Katz, R. (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27-39.
- Mason, K. O., & Bumpass, L. L. (1975). U. S. Women's Sex-Role Ideology,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1212-1219.
- Mickelson, K. D., Claffey, S. T., & Williams, S. L. (2006).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link between spous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Sex Roles*, 55(1-2), 73-82.
- Osmond, M. W.,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4), 744-758.
- Richmond, K., Levant, R. F., Smalley, B., & Cook, S. (2015). The Femininity Ideology Scale (FIS): dimensions and its relationship to anxiety and feminine gender role stress. *Women & Health*, 55(3), 263-279.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1차원고접수 : 2026. 01. 11.
심사통과접수 : 2026. 03. 03.
최종원고접수 : 2026. 03. 30.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in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ration Model(APIMoM)**

Minje Kim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gender role attitud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among couples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To account for the interdependence between spouses,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ration Model (APIMoM) was employed. A total of 134 coupl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that included measures of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efficacy, and gender role attitud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tor effects were significant for both husbands and wiv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Second, regarding partner effects, wives' parenting attitudes negatively influenced their husbands' parenting efficacy. Third, when comparing the effects of one's own and partner's parenting attitudes on parenting efficacy, actor effects were stronger than partner effects for both husbands and wives. Fourth,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ives' parenting attitudes and husbands' parenting effic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ne's own parenting attitude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shaping parenting efficacy than those of one's partner.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can influence the dynamic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within the couple.

Key words : Couple,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Efficacy, Gender Role Attitude, APIMoM, Couple Parenting